

# 농진원, 스마트농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

## 맞춤형 바우처 지원으로 기술 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연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함께 3월 6일까지 '2026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를 보유한 기업

이 국가표준을 제품에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활용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스마트농업 확산 과정에서 기기 간 호환성과 신뢰성을 높여 농가의 현장 적용성을 특히 올리는 기업의 기술 수준

과 사업 단계에 맞춘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지원체계로 운영한다. 지원 내용은 ▲국가표준 적용을 위한 제품 제작 ▲실증 및 현장 보급 ▲경영전략과 표준 컨설팅 ▲박람회 참가와 홍보물 제작 등으로, 기술 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을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시제품 제작형 약 32개 업체(업체당 3천만 원, 국비 70%), 실증 및 현장 보급형 8개 업체(업체당 3억 원, 국비 50%) 등 총 40개 업체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형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실질적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4월 초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홍호 스마트농업본부장은 "국가표준을 적용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는 정부 유사 지원사업과 지자체 연계 사업 등 다양한 현장 적용 과정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며, "스마트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년 참여업체 제품 설치 농가 현장방문(농진원 제공)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com

# 식약처, 사우디와 손잡고 K-푸드 할랄인증 지원 나선다

##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중동지역 수출 활성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중동 등 이슬람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할랄 인증기관 인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그 첫걸음으로 2월 11일(현지시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을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현재 우리 식품업체가 이슬람

국가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속적인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사우디 등 중동지역의 할랄 인증을 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식약청은 산하 공공기관인 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

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우디 측과의 실무협의에서는 식약처, 인증원, 사우디 식약청과 그 산하의 사우디 할랄 센터 등이 참석하여 ▲할랄 인증기관 인정요건 ▲심사 절차 및 제출 서류 ▲현장 심사 방식 ▲인정 이후 사후관리 등에 대해 실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인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 여지를 확대했다.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인

증원이 사우디의 할랄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증 시간과 소요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이슬람권 국가로의 인정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규제 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도 K-푸드 수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해외 규제 및 인증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식품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영란 기자  
yugran528@hanmail.net

# 국립종자원, '대한민국 우수품종 경진대회' 참가품종 모집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국내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의욕을 고취하고 종자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우수품종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참가 품종을 모집한다. 국립종자원은 2005년부터 국내에서 육성된 작물 품종 가운데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이다. 다만, 수출품종상의 경우 품종보호등록이나 국가품종목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 실

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출품이 가능하다. 경진대회 참가 접수는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3월 말 분야별 서류심사를 거쳐, 4월부터 10월까지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가 평가와 소비자 평가가 실시되며, 10월 종합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 품종 8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 품종에는 총 1억6

천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 내역은 대통령상 1점(5천만 원), 국무총리상 2점(각 3천만 원), 국립축산식품부 장관상 5점(일반 분야 4점, 후계육종 분야 1점·각 1천만 원)이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육성한 품종은 해당 상금의 50%가 지급된다. 참가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com

# 농약 등록·평가체계 개선에 민관 머리 맞댄다

## 살포 방법 다양화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연구정책국 방혜선 국장은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리는 '농약 등록·평가의 미래전략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이 주최하고,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협의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발맞춰 현행 농약 등록 및 평가체계의 개선점을 발굴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

을 지키고 농약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약 회사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업·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규제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농약 등록·평가 절차 개선 방안 △변화하는 농업 환경을 반영한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 개선 방안 △원제 등록 정보 관리 방안

△국제 수준의 농약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민관 협의회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우리 농약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재구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농약 등록 및 관리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민관 소통 창구를 정례화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 드론 활용 차단방역 실시

## AI·ASF 확산 우려 속 방역 취약 농가 10곳 대상 정밀 소독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 제공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조합장 구희선)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지부장 송재철)와 협력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대비한 차단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은 전국적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관내 방역 취약 농가 10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전문 방역 외주업체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정밀 소독을 실시해 기존 인력 중심 방역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방역 드론을 투입해 축사 지붕, 농장 외곽 울타리, 차량 진출입로 등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소독함으로써

방역 범위를 확대하고 소독 효율을 크게 높였다. 이를 통해 단시간 내 광범위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합은 농장 규모와 입지 여건, 차단방역 취약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농가를 선정했으며, 축사 내·외부 소독을 비롯해 출입 차량과 장비 소독, 방역 취약 구역 집중 소독 등 체계적인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전문 방역 인력과 고성능 소독 장비를 투입해 농가 자체 방역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농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사항을 재점검하고, 질병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 신고 체계를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방역 교육도

병행했다. 구희선 조합장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축산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재난형 가축질병"이라며 "사전 예방과 철저한 차단 방역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지원을 통해 조합원의 안전한 생산 기반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은 상시 방역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질병 위기 단계에 따라 추가 방역 지원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이기자  
midal0210@naver.com

**농축환경신문**

1998년 10월 26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대 06693

(0407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  
 기사제보 전화: 02-582-4016 팩스: 02-582-4002  
 광고신청 전화: 02-582-4016  
 이메일: press@nongupl.com  
 홈페이지: www.nongupl.com  
 자매지: 농업경제  
 발간권: 편집인 방혜선 | 인쇄인 이경자  
 발행처: 편집국장 김대경 | 인쇄인 이경자  
 구독신청: 배달안내 02-582-4016  
 구독료: 월 8,000원 / 년 96,000원  
 농협은행 301-0328-9561-51 (농축환경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지속가능한 食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